

전남 ‘시니어 의사 구하기’ 실패…의료 인프라 강화 시급

3차 공모에도 해남·신안·영암 채용 결국 무산…진도만 성공
의대·대학병원 없어 섭외 등 난항…국립의대 조속 설립해야

전남 자치단체들의 ‘노장 의사 구하기’가 실패로 돌아갔다.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과 의료 서비스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공모였다는 점에서 국립의대 설치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신안군·해남군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지난 8일까지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니어 의사를 공모했지만 끝내 ‘지원 의사’를 찾지 못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남 농촌의 필수 의료 인력난 해결을 목표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정부가 의사 1인당 월 400만원(시간제)과 1100만원(전일제)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해 60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를 채용·배치하는 구조로, 전문의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보건소에 시범 지정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도·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와 강진의료원, 구례군보건의료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진의료원과 구례군보건의료원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의사를 재고용(각각 영상의학과, 산부인과)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보했다. 진도군보건소는 한달 동안의 치열한 ‘의사 구하기 세일즈’에 나서면서 1명의 지원자를 확보해 정식 채용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의사 데려오기에 실패했다.

영암군보건소의 경우 귀농한 의사 등을 겨냥해 시간제(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로 모집했지만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고, 해남군·신안군보건소는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달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들은 1차 모집 시기에 채용에 실패하자 재차 채용 공고를 올리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지인 등 구인망을 총동원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사업 최종 마감기한(8월 8일)이 지나면서 이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전남 다른 시·군의 경우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

되고 있다.

앞서 전남에서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지역 필수인사제 시범사업’,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 등 의사·약사를 끌어모으기 위한 사업을 이어왔으나 번번이 무산되거나 축소 운영됐다.

전남의 경우 의대·대학병원이 없어 퇴직 의사 섭외 경로 등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거나 의료진 부족으로 의사 본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 등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게 지자체 푸념이다. 실제로 강원·경기·경남 등지에서는 지역 의대와 교통 여건 등이 갖춰진 만큼 채용 성과가 높았다는 게 관계자들 이야기다.

복지부의 설익은 사업 진행도 지적되고 있다. 통상 3월에 일반 의료기관 전문의 채용이 이뤄지는데 하반기에 ‘반짝’ 의사를 모집하려 하니 안그래도 없는 인력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이 의사 채용을 위해 발로 뛰었지만 여건상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오히려 보건소 측에서 행정 부담과 압박감을 받는 등 상처만 받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꽃그늘 아래서 10일 광주시 북구 신원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만개한 배롱나무꽃을 배경으로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12일까지 오락가락 비

광주·전남에 당분간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오전부터 오는 12일 밤까지 광주·전남 전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2일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0~60mm의 비가 내리고, 전남 해안가에는 20~8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자리잡은 정체전선(장마전선)이 북상하는 데 따라 내리는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국 내륙까지 동서로 넓게 확장한 상태에서 한반도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

기가 남하해 서로 부딪히면서 정체전선이 생겨났다. 이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는 ‘장마’와 유사한 양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에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신안 흑산도 226.0mm, 영암(학산) 187.0mm, 해남(북일) 184.0mm, 강진 178.3mm, 완도 168.0mm 등 비가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

벌 받고

나주 벽돌공장 ‘외국인 노동자 조롱’ 지게차 운전자 입건

나주의 벽돌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린 50대 운전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12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나주 벽돌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50대 지게차 운전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벽돌공장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하는 자’로도 돼 있다는 점에서 A씨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A씨에게 직접 과태료를 매겼다.

또 근로감독 결과 벽돌공장 업주 측이 전·현직 근로자 총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재직 근로자 17명에 대한 체불금액은 2400만 원이며, 이중 외국인 재직 근로자 6명의 미지급액은 16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괴롭힘’을 당했던 외국인노동자도 25만원을 체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주 측이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업주에게 오는 22일까지 금전 관련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근로시간을 개선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사업장에 대한 최대 3년간 고용허가 제한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산재 예방 등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정 절차에 따라 시정과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힘 받고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오늘~이달 말…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도 진행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인권 상담 받는 날’로 지정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집중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전북 완주군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나주시 벽돌공장 침해사건을 비롯해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25일 6면>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 동안을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SNS, 리플릿, 자치단체 연계 등 방법으로 노동인권 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오는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및 운영한다. 이날에는 소속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진행, 외국인노동자 작업복에 명찰을 부착해 주는 행사도 치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곡 바로 바로 확인까지 곡!

zgm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